



제11차 한불포럼,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논의

기사등록 일시 [2014-10-17 15:16:42]

【서울=뉴시스】 김진아 기자 =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1회 한국-프랑스 포럼에서 티에리 드 몽브리알(Thierry de Montbrial)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장,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한국국제교류재단(KF)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(IFRI)가 공동 주관하는 한불포럼은 양국의 정치, 경제, 문화, 교육 분야 저명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 상설회의체로 한반도 통일과 세계화, 사회정의, 디지털시대의 문화 등을 논의한다.2014.10.17.

bluesoda@newsis.com